

농가부부의 노동과 여가: 선행연구 분석을 통한 가족복지대책 모색*

Labor and Leisure of Rural Couples : Family Welfare Implications through
the Analysis of Related Literatures

전남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조교수 한 경 미

Dept. of Home Management, Chonnam Univ.
Assis. Prof. : Kyeong Mi Han

〈 목 차 〉

- | | |
|------------------|------------------------|
| I. 서론 | III. 농촌가족의 복지대책에 관한 논의 |
| II. 농가부부의 노동과 여가 | IV. 결론 및 제언 |
|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figure out the labor and leisure of the rural couples through the analysis of the related literatures and to make some contributive suggestions for the higher quality of rural life.

To solve the rural family's problems, and to promote welfare, reductive method of housework and farm-work, active leisure-participation, and other psycho-social approach etc. various methods are discussed.

I. 서론

우리나라 농촌은 청장년층의 도시유출로 노동력부족과 노동력의 노령화, 부녀화현상이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농가인구는 점점 감소하여 1960년에 전체인구의 58.3%를 차지하였으나 1993년 현재 12.3%

에 머무는 수준이다. 농가의 평균 가구원수도 3.77명으로 전국가구의 평균(3.83명)보다 적다. 1990년에 50세 이상 경영주의 비율은 63.7%로 급격히 높아지는 반면에, 40세 미만 경영주의 비율(14.1%)은 크게 낮아지고 있고 이러한 노령화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농림수산부, 각년도).

* 이 논문은 1996년도 전남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논문임.

우리나라 농촌의 경영형태는 가족노작적 소농형태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가족의 크기가 소가족화되어 개별농가가 받는 노동력부족의 압력은 심각해졌다. 농촌노동력의 부족으로 과거에 농업보조자로서의 위치에 있던 여성의 농업노동의 비중이 커져 여성의 역할은 가정관리를 수행하는 가사담당자 역할과 농업생산에 참여하고, 기타 경제행위를 하는 경제활동자, 지역사회 활동자로서의 역할을 갖는다. 농업생산의 종류에 따라서 남녀 차이가 있으나, 논농사의 전과정에 부부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밭농사에는 여성의 참여도가 높다. 또한 생산의 유형이 복합영농화되면서 특작농업의 경우 비닐하우스의 소재생산은 여성의 노동력을 무한대로 요구한다.

농업생산활동에 차지하는 여성노동력의 비중이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남성들의 가사노동참여 수준은 과거와 비교할 때 별 진전이 없다. 대부분의 가사노동에서 주부가 주로 전담하는 비율이 90%를 이루고 있다(김주숙, 1987). 더욱이 우리 농촌은 도시보다 가부장적인 전통문화와 남성중심의 사상이 지배적이어서 여성의 역할확대나 생산노동에 기여도가 농촌여성의 지위나 권리향상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1992년 농어민후계자 여성 2% 선정, 농림수산부, 1992). 농업의 기계화나 생산에서 조직활동도 남성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농촌가족의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의식주수준은 많이 향상되었으나 도시에 비하면 크게 열악한 수준이고, 지역사회와 가정환경의 실제 조건보다 주관적인 만족도는 더 낮다(최은숙 외, 1992; 김인숙 외, 1993). 자녀양육과 노인부양을 도와줄 사회적인 지원체제도 미비하고, 농산물 저가정책으로 농촌의 경제사정은 계속 악화되어 와서 시장의 재화나 용역으로 노동을 대체할 경제적능력이 없기때문에 노동의 강화와 심리적 부담, 건강상의 훼손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 또한 복합영농이 증가하면서 농번기와 농한기의 구분이 없이 특용작물과 과수, 비닐하우스 등을 하는 농가가 많아짐으로써 농한기에도 여가시간을 갖는 것이 점차 어렵고, 비닐하우스 작업병과 유행병이 높아지고 있다. 최은숙(1990)은 2000년대에는 농촌가정생활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는 농촌여성의 건

강문제, 작업환경문제, 노동시간관리 문제, 자녀양육 및 노약자 양육문제 등의 제반문제에 대한 파악과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농가의 생활의 질 저하문제는 바로 우리나라 농촌과 농업의 문제이고, 지속적으로 농업을 유지하여 식량을 조달하고 농촌이 발전을 지속하는데 중요한 관건이 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사실 농촌총각의 결혼문제가 사회문제화될 만큼 여성들이 농촌생활을 기피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가정학에서 다루어진 연구들은 도시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집중되어 있고, 농촌가족에 대한 연구는 사회학과 농학분야에서 주로 이루어져 왔다. 가정학이 응용학문으로서 생활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사회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임무지향적 학문분야(Brown과 Paolucci, 1979)임을 명시한다면, 미래의 가정학 연구방향과 대상은 중산층 이상의 도시가족에 편중된 연구를 지양해야 할 것으로 본다. 오랜 기간동안 국가적인 혜택에서 소외되고 복지체계에서 취약한 집단인 저소득가족과 농촌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농촌노동력의 부족과 노령화, 여성화현상으로 개별농가의 노동부담이 가중됨으로써 파급되는 농촌가정생활의 문제점을 감안하여, 농촌의 주요 노동력이 되는 부부의 농업노동과 가사노동, 여가현황과 그 만족수준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는 1960년대 부터 최근 1996년까지 국내 농촌 가정생활을 대상으로 한 연구한 논문과 통계자료이다. 특히 농촌가정의 생활실태를 다룬 학제적 연구결과들을 분석하였다. 연구문제별로 결과를 분석한 후에 농촌가족의 복지대책에 관한 논의를 하였다.

그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농촌가족의 인구구조와 변화양상은 어떠한가?
- 2) 농가부부의 농업생산노동의 현황과 변화추이, 농업노동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 3) 농가부부의 가사노동현황과 이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 4) 농가부부의 여가현황과 이에 대한 만족수준은

어떠한가?

II. 농가부부의 노동과 여가

1. 농촌 노동인구 구조의 변화양상과 문제점

농촌가족은 가구당 인원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 특히 20-40대 젊은층이 적고, 성별로 보면 10대 이후부터는 모든 연령층에서 여자가 더 많다. 총부양율은 50%이고, 노년부양율이 15.5%, 노령화지수 45.1% (남자 33.6%, 여자 57.0%)로 조사대상 농촌인구의 노령화, 여성화현상이 두드러진다(이한기와 한귀정, 1994). 이러한 노령화, 여성화현상은 우리 농촌의 전반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경제성장 정책에 따라 농업부문이 축소되는 과정에서 농촌인구의 감소는 자연스런 현상이다. 문제는 농업의 기계화가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농촌인구가 단기간에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농업노동력의 부족현상을 일으켰다는 점이다. 농업취업 인구의 비율이 1977년에 60%이던 것이 불과 14년후 1991년에는 16%로 급감하였다. 이렇게 감소되기까지의 소요년수를 국가별로 비교해보면 비교국가들 중에서 가장 짧다(이정환, 1993).¹⁾

1960년 농가인구는 1,456만이었으나, 절대수에 있어서도 감소하여 1993년에는 541만이고, 농가인구비도 1946년에는 74.4%, 1960년에는 58.3%를 차지하였으나 80년에는 28.4%, 93년에는 12.3%로 감소하였다. 농가호당 가구원수는 평균 3.77명인데 이는 우리나라 전체 평균 가구원수(3.83명)보다 적은 것이다(농림수산부, 한국은행, 각년도).

산업별 취업자수의 추이를 보면 총취업자중 농림어업 취업자율이 1970년에 50.4%였는데, 1992년에는 16%로 급감하였다(통계청, 1993). 연령분포를 보면

50세 이상 농가인구 비율이 1970년의 15.6%에서 1992년에는 40.3%로 급증하고 있는 반면, 20세 이하 인구는 53.8%에서 28.3%로 감소하여 농촌노동인구의 노령화정도를 알 수 있다. 50세 이상 연령층은 10년내에 농업에서 은퇴할 것으로 예상할 때, 농가인구의 급속 감소가 예상된다. 특히 농업경영주의 고령화는 매우 심각하다(농림수산부, 1993).

정영일(1995)은 미래 우리농업의 상대적지위는 계속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2001년에는 농가인구의 비중과 농업취업자 비중, GNP에서 농업의 비중이 모두 10% 미만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계하였다.

청장년층의 이농에 따라 농촌가족은 노령화가 가속화될 뿐 아니라 농촌의 과소화, 공동화(空洞化)현상으로 농업생산력이 저하되고, 학교가 폐쇄되는 등의 지역사회 기능까지 위축시키게 되었다. 가부장적인 전통 이데올로기가 도시가족보다 지배적인 농촌가족에서 여성의 과중노동과 복지체계 미흡으로 인한 문제들이 더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농촌의 잔존인구는 상대적으로 저학력이므로 농업인구의 질적감소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2. 농가부부의 농업노동 현황과 추이 및 인식

1950년대 말에 시행된 농촌가족 연구에서는 농촌 여성의 생활범위가 주로 가정 및 살림살이에 한정되어 농업생산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그들의 결정권도 매우 미약했음을 보고하고 있다(고황경 외, 1962).

1960년대 중엽에도 가사활동은 처의 역할이며, 남편의 가사참여는 거의 전무함을 보여준다(최재석, 1975). 즉 남편은 바깥일을 부인은 집안일을 한다는 전통적규범이 남아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여성

1) 네덜란드 95년, 영국 70년, 독일 60년, 프랑스 44년, 덴마크 42년, 미국 42년, 일본 31년, 한국 14년.

2) 농가경영주 연령

(단위: %)

| 연 도 | 30세미만 | 30-39세 | 40-49세 | 50-59세 | 60세이상 |
|------|-------|--------|--------|--------|-------|
| 1970 | 8.7 | 26.5 | 26.7 | 22.9 | 15.2 |
| 1990 | 2.1 | 12.0 | 21.2 | 32.2 | 31.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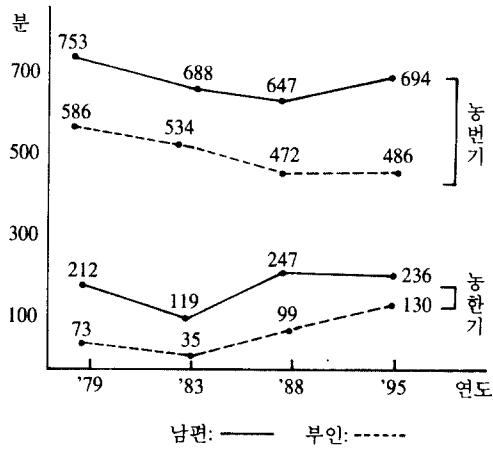
이 참여한 영역은 집안일에 국한되지 않고 밭매기, 타작일, 벼베기, 논메기, 시장에서 가축매매까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 주부들의 농업생산역할과 지역사회활동이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부터이다. 청장년층의 노동유출로 보조자위치에 있던 여성농업노동자의 중요성이 재인식되면서 농촌여성의 역할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되었다. 농가주부의 역할은 가정관리를 수행하는 가사담당자 역할과 농업생산에 참여하고 기타 경제행위를 하는 경제활동자, 지역사회 활동자로서의 역할을 갖게 되었다. 농업생산의 종류에 따라서 여성의 노동참여에 차이가 있으나 1976년 조사에서 공동모태기에 여성들이 대거 참여하였으며, 품앗이도 하며, 일반농업가구, 고등소채를 주로하는 가구, 과수를 겸한 가구 등 모든 형태의 농가에서 일관되게 남편보다 부인의 농업생산 참여율이 높았다.

1980년대 농촌여성들은 남성보다 밭농사의 참여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밭의 김을 매고, 이식하고 밭작물을 수확하는 일등은 주로 여자들의 역할내용이고 이 일들은 부인 혼자 해내는 비율이 높았다. 논농사에서도 비료나 농약살포 이외의 전과정에 여성들의 참여율이 높다. 또한 응답자의 25%가 생산한 농산물을 가져다가 판다고 응답하였다(김주숙, 1980). 한국여성개발원의 '86년 조사에서 농촌여성의 99.6%가 농사일을 하고 있고, 81.5%가 농업의 주 노동력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노동의 총 투자량 중 농촌여성의 비중은 '65년 27.5%에서 '70년 32.4%, 80년 42.6%, 88년에는 46.9%로 남성 농업노동을 능가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또한 농촌여성은 임.수산물의 채취, 자영서비스업, 가내수공업, 행상·노점, 공장노동, 가내부업, 고용서비스업, 농업임노동 등의 농외소득활동에도 활발히 참여하였다. 1987년(김주숙)연구에 의하면 이양기의 보급으로 공동모태기는 사라졌지만 벼를 심기 전후에 요구되는 노동과정에 부부가 같이 참여한다. 특작농업, 특히 비닐하우스 안에서 하는 소채생산에서 여성노동이 많이 요구된다. 특작의 종류별로 보면 비닐하우스를 하는 가구의 부인 90%이상 비닐하우스 일을 하고,

과수를 하는 농가에서도 88.3%, 축산농가의 경우도 여성노동의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특작농업을 하는 경우 여성의 노동력은 무한대로 요구된다. 부부의 품앗이 노동여부를 본 결과 지난 1년 동안 품앗이를 한 경험이 있는 부인의 비율은 59.9%, 남편의 비율은 65.6%이었다. 부부의 품앗이 일수는 비슷한데 1-19일 이내였다. 부인중 노임을 받고 남의 집 농사일을 하는 부인은 28.2%이었고, 남편은 18.2%이었다.

1990년에 농가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1.1%로 비농가여성 44.2%보다 훨씬 높다. 이는 같은 기간 농촌 남성의 증가율을 앞지르는 것이다. 특히 영농활동 참여가 증대되었다. 이금옥(1992)연구에서는 농촌 여성의 노동시간은 영농규모가 클수록, 가정내의 의사결정권이 적을수록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3년(농림수산부)자료에 의하면 전체노동 투자량 가운데 여성의 비율이 48%로 높아졌다. 이 중에서 품앗이 노동과 고용노동은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이 하고 있다. 논농사는 남성의 참여가 여성보다 높고, 기계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밭농사는 주로 여성이 참여하였다. 농가주부의 농기계 이용율은 매우 낮아, 농업 참여 여성의 6%만이 농기계를 사용할 줄 안다고 응답하였다(권영자 외, 1987). 월별 노동량을 보면 5월에 노동량이 가장 많고, 전체적으로 5,6,9,10월이 농번기이고 4,7,8월은 여유가 있는 편이며, 11월에서 3월은 농한기로 나타났다(농림수산부, 1993). 그러나 특작과 같은 복합영농을 하는 경우는 이러한 구분이 분명하지 않다. 아직까지는 농업이 가족노작적 경영인데, 가구의 크기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개별농가가 받는 노동력부족 현상은 심각하다. 농촌가족이 이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김주숙(1987)은 5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학생이나 노인을 제외하고는 농가의 전가족이 농업생산에 투여될 것, 둘째, 친척이나 이웃 등과 더불어 품앗이 등의 노동력 교환방법을 충분히 활용, 셋째, 가능한 기계를 도입하여 농사를 하고, 불가능한 경우는 기계품을 산다. 넷째, 소득증대를 위해 경작규모를 늘리거나 새로운 농업생산을 폐해보거나 겸업 시도, 끝으로 자가노동력이 절대 부족할 때는 농토매각이나 임대 등을 들었다.



자료: '79, '83, '88년 - 농촌진흥청
'95 - 김인숙 외(연구자와 조사방법이 동일)

<그림 1> 농업노동시간 추이

생활시간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부부 농업노동시간의 추이를 살펴보면<그림1>, 영농의 기계화가 많이 진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시간의 감소에서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농번기에 남편과 부인 모두 '88년보다는 약간 증가하고, 농한기도 '83년을 기점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는 농업인구에서 청장년층 인구가 감소하고 부녀화현상이 일어나면서 생산력이 떨어지고, 가족 1인당 노동부담이 가중되었으며, 농한기에도 특작농업 등으로 인해 노동시간이 증가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79년 농번기의 경우 부인은 9시간 46분, 농한기에 73분을 투여하였는데, '95년에는 농번기와 농한기에 각각 8시간 6분, 2시간 10분을 할애하여 농번기의 노동시간은 다소 감소하고, 농한기의 노동시간은 약간 증가함으로써 그 차이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특작을 병행하는 농가가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앞으로도 농번기와 농한기의 구분이 점차 없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변화의 폭은 적지만 남편의 경우도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농번기와 농한기를 평균한 농업노동시간은 남편이 7시간 45분, 부인이 5시간 8분을 투여하여 남편이 부인보다 2시간 37분을 더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농촌부인은 기계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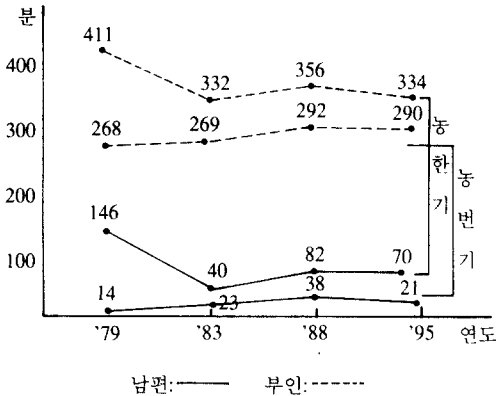
농사나 비닐하우스 내의 특작농업 등에 주로 참여하기 때문에 농업노동에서 신체적 노동강도나 작업자세가 열악하고, 가부장적인 문화가 지배적인 농촌에서 부인의 생산노동의 기여가 제대로 평가되지 않으며, 가사노동의 전담자로서의 부담까지 안고 있어 심리적 갈등이 남편보다 훨씬 심각할 것으로 사료된다. 농촌부인이 생산노동과 지역활동에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게 된 것은 여성 스스로의 의식구조 변화에서 자발적으로 행해졌다기 보다는 농촌노동력의 부족과 외부로부터 들어온 요인에 의한 것이다.

농민의 농업에 대한 인식을 보면 농촌의 저발전 원인은 정부의 도시편향적 정책때문이라고 46.8%가 응답하였다(김태호, 1994). 3/4의 농민은 농업의 장래성을 어둡게 보고 있으며, 자녀에게 영농을 승계하겠다는 사람은 3% 밖에 되지 않았다(김일철 외, 1994). 응답자 본인의 경우도 앞으로 농사일을 계속 할지의 여부를 물어본 결과 72%가 그만 두고 싶거나 어쩔 수 없이 한다고 답하였다(김혜경 외, 1990). 그리고 농업에 대한 투자욕도 저하되어 여유자금 있으면 우선적으로 농사에 투자하겠다는 비율은 22.3%에 불과하였다(농촌경제연구원, 1989). 또한 농민의 2/3는 농업정책이 농업실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고, 3/4의 농민은 정부발표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반응도 보였다(김동일 외, 1982). 농촌 남성의 경우 객관적 변수보다 농업에 대한 자긍심이 생활만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조완규, 1993), 지난 수십년간 공업위주, 도시위주의 성장정책에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가지게 된 농민들은 가치관이 전도되고, 농업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지 못하며, 소외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농가부부의 가사노동현황과 인식

농가부부의 가사노동시간에서 추이는 <그림 2>에 제시되어 있다. '79년 농한기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볼 때 과거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부부 모두 농번기보다는 농한기에 더 많은 가사참여를 하였는데, 남편과 부인이 큰 격차를 가지고 있고, 시대 변화에 따른 진전이 없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79년과 '95년을 비교하면 주부의 가사노동시간은 농번기는 별 차가 없고 농한기에 1시간 10분 정도 감소하였다. 농번기에 주부의 가사노동시간이 '79년 이후로 별다른 차를 보이지 않는 것을 볼 때 가정생활을 영위하는데 최소한으로 일정하게 투여되어야 하는 시간의 양이 4시간 30분-50분 정도임을 알 수 있다. 남편의 경우 역시 농번기에는 과거와 비슷하고, 농한기에는 감소하였다. 가사참여가 농번기와 농한기를 평균할 때 부인은 남편보다 4시간 27분을 가사노동에 더 할애하였다.



자료: '79, '83, '88년 - 농촌진흥청
'95 - 김인숙 외(연구자와 조사방법이 동일)
<그림 2> 가사노동시간 추이

농가부부의 가사분담을 보면 농사일의 뒷처리를 의미하는 뜯청소나 연료준비, 기계 수선 등에는 남편이 많이 참여하지만(김주숙, 1980; 농촌진흥청 1984) 밥짓기와 설거지, 반찬만들기, 빨래, 방청소와 정돈, 불때기 등은 주로 부인이 하는 비율이 93% 이상이었으며, 시어머니나 딸이 5%인 것으로 나타났다(김주숙, 1987).

농가의 의식주 생활수준은 많이 향상되었으나 아직도 도시에 비하면 가사노동환경이 열악한 수준이다. 1987년 경제기획원 통계자료에 의하면 상하수도 보급율이 대도시는 96%이나 읍소재지는 53%, 면소재지는 8%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조희금(1989)에 의하면 부엌안에 상수도가 설치된 경우는 33% 뿐이었고, 부엌안에 하수도가 설비되어 있는 가구는 32%뿐

이었다. 아직도 부엌바닥이 흙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33%나 있었다. 가사노동의 동선도 비능률적이다. 부엌과 식사장소의 연결을 볼 때 63%가 부엌에서 상을 차려 밖으로 나왔다가 마루를 지나 방으로 가게 되어 있고, 6%만이 부엌안에서 식사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 쪽문을 이용하는 경우도 32%에 불과하다. 부엌 작업대도 자기 신장의 30%에도 못미치는 낮은 작업대에서 41%가 일하고 있었고, 적절한 작업대는 15%에 불과하였다. 빨래도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경우는 11% 뿐이었다. 김인숙 등(1993)은 농가의 생활수준을 측정하였는데, 가사작업면에서 가사편의 기구의 보유정도는 다른 생활수준보다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기구의 보유와 소유정도에 있어서 조희금(1989)은 가스레인지 보유율이 90%로 가장 높고, 냉장고, 세탁기, 입식부엌의 보유율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유한 기구의 사용정도를 보면 가스레인지가 가장 높고, 전기밥솥, 세탁기 순이며 의생활관련 기기들의 사용율은 낮았다. 김혜경 등의 연구(1990)에서도 냉장고, 세탁기, 전기밥솥, 가스레인지 등은 높은 사용빈도를 보였으나, 전기다리미, 전기후라이팬, 전기장판, 재봉틀 등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사노동의 사회화 현황도 도시보다는 훨씬 낮아 식생활의 일부 영역인 라면(69%), 구이김(41%), 커피(33%)를 월 1-2회 이상 이용하고 조사대상지역 모두 농번기때 공동취사나 탁아소 등은 운영되지 않았다.

농촌 주부들은 농업생산과 농외소득활동까지 담당하고 있으며, 가사노동의 책임은 90% 이상을 주부가 맡고 있다. 앞에서 시간분석에 따른 노동의 양적인 면만 보더라도 <그림 1, 2> 부인은 남편보다 1시간 4분을 더 노동에 투여하고, 생활만족이나 생활의 질 인식에서도 남편보다 낮다.

농가주부의 가사노동 만족도는 도시주부보다 낮고(안옥희 외, 1993), 부인의 결혼만족도는 남편보다 유의하게 더 낮다(서광희 외, 1993). 과중한 노동으로 바쁘고 힘든 농촌주부가 가장 크게 인식하는 문제 중 하나는 자녀돌보기이고(한국여성연구소, 1981), 가정생활에 불만사항으로 가장 많이 지적된 것은 수입의 불안정성과 가사일을 충분히 하지 못하는 것이

다(김혜경 외, 1990). 최근 연구(김태호, 1994)에서도 농촌 여성들은 농사일과 가사의 이중적 역할을 가장 큰 문제로 들었다(44.7%). 그 다음은 편의시설 부족(21.6%), 자녀양육의 어려움 등을 애로점으로 인식하였다. 농촌의 결혼문제는 67%의 농민이 '매우 심각하다'고 반응하였고, 결혼난의 주된 요인으로는 43.3%가 힘든 농사일 때문이라고 답하였고, 그 다음은 경제적 어려움(26.4%) 때문이라고 보았다(김일철 외, 1994).

과로로 인한 질병도 농촌가족의 심각한 문제이다. 김태호(1991)에 의하면 농부병은 팔다리와 어깨가 아프고, 어지럼과 두통이 심한 증세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불건강의 원인에 대하여 농민들은 과중한 농사일(40.1%)과 시기적으로 적절한 치료미흡(25.2%) 등을 가장 크게 들고 있다.

농산물 저가격정책으로 농가의 경제사정은 계속 악화되어 왔고, 이 영향은 농가주부들에게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 심리적부담, 건강의 훼손, 노동의 강화 등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농가의 빈곤상황을 남성보다 여성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김동일 외, 1982), 농업노동의 노령화, 여성화로 인해 건강문제에서는 유병율이 여성에게서 더 높다. 건강은 농촌가족의 생활만족에 중요한 변수로 밝혀졌는데(조완규, 1993), 대체노동력이 없는 농촌 주부들은 산전, 산후관리도 소홀할 수 밖에 없다. 김주숙(1980)은 농촌여성들이 분만후 며칠만에 집안일이나 농사일을 하였는지를 조사하였는데 응답자의 48.3%가 3일만에, 84%가 1주일 내에 일을 시작하였다. 지난 1년동안 응답자 가정에 아픈 가족이 있었던 가구는 75.3%이었고, 치료는 약국을 이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질병의 원인을 답하도록 한 결과 일을 많이 해서, 일이 힘들어서, 과로때문이라고 응답한 것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산후조리부족, 원기부족, 신경성, 피임법 사용, 유산을 많이 해서 순으로 나타났다. 과중한 노동으로 인한 피로의 축적이 질병에 취약하게 만들고, 조로(早老)현상을 가져오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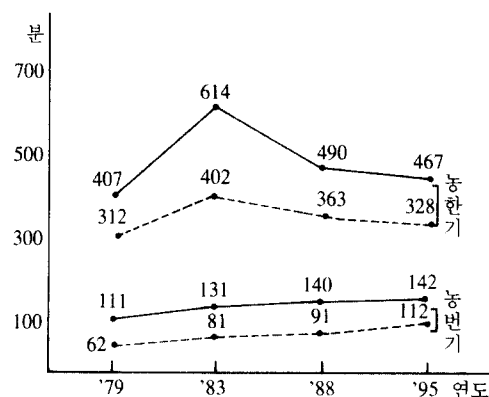
농가에서 3세대 이상가구는 17.4%로 도시가정의 10.8%보다 높다. 이것은 농가주부의 가사부담에 노인부양 부담까지를 더 가중시킨다. 전체 농가의 39%

가 60세 이상 노인이고, 7.3%가구는 노인부부만이, 5.5%가구는 노인 단독가구이다(통계청, 1990). 따라서 개별차원보다는 지역사회 차원의 탁로소와 같은 복지시설 마련이 불가피하다. 잔존한 농촌가족은 노령화되어 있고, 가족노작적 소농이 많아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농업노동은 과중한데다, 가정생활을 영위하는데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할 가사노동이 있어 지역사회나 국가차원의 정책적 배려가 시급하다고 본다.

4. 농촌가족의 여가현황과 만족도

상업적 농촌의 증가로 농번기의 구분이 없이 특용작물, 과수, 비닐하우스 등을 하는 농가가 증가함으로써 농한기때도 농업노동시간이 증가하여 여가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점차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가 부부의 여가시간(사회문화적 시간) 추이를 살펴보면(그림 3), 남편과 부인 모두 농번기의 여가시간은 약간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니, 농한기의 여가시간은 '83년을 기점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그림 1>에 의할 때 '83년 이후 농한기의 농업노동시간이 증가하여 왔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농촌인구의 도시유출이 가속화되고 복합



남편: — 부인: - - -
 자료: '79, '83, '88년 - 농촌진흥청
 '95 - 김인숙 외(연구자와 조사방법이 동일)

<그림 3> 여가시간 추이

영농을 국가적으로 적극 장려하면서 농한기의 농업 노동시간이 증가된 것으로 사료된다. 농번기와 농한기 모두 남편의 여가시간이 부인보다 많은데, '95년 자료에 의하면 농한기에는 남편이 7시간 47분, 부인이 5시간 28분을 여가에 할애하고, 농번기에는 남편과 부인이 각각 2시간 22분, 1시간 52분을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한기에는 남편의 여가시간이 부인보다 2시간 20분이 더 많다. 농한기와 농번기를 평균하면 남편은 5시간 3분, 부인은 3시간 40분으로 남편이 부인보다 여가에 1시간 23분을 더 할애하였다. 농번기와 농한기 여가시간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남편과 부인 모두 TV시청이고, 이웃·친척방문, 취미생활은 농한기에 증가하였으며, 나머지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1990년(조희금)연구에 의하면 농번기에 주부의 사회문화적 시간은 2시간 19분, 농한기에 6시간 16분으로 연평균 4시간 18분이었다. 김혜경 등의 연구(1990)에서는 농가주부의 문화적시간은 평균 3.5시간이고, 주로 TV를 시청하거나 라디오 듣는 것, 독서, 이웃과 친구, 친척 방문으로 여가의 질이 낮은 것으로 지적하였다. 최은숙과 김인숙(1990)은 주부의 하루 평균 자유시간의 정도가 1-2시간미만이 31.0%로 가장 많고, 0-1시간 미만이 29.1%, 2-3시간 미만 26.0%, 3시간 이상은 13.9%로 나타났다. 또한 한가할 때 주로 TV를 보거나 라디오를 듣는다가 22.0%로 가장 많고, 친구나 이웃, 친척방문이 17.9%, 별로 하는 일이 없다는 15.8%, 낮잠, 부녀회활동, 종교활동 등에 5% 이상 답하였다. 그리고 교양을 쌓기 위하여 신문을 읽거나 TV 교양프로, 잡지 정기구독 중 2가지 이상을 정기적으로 하는 경우는 4.7%에 불과하였고, 시간이 없거나 관심이 없는 경우가 43.3%나 되었다.

이상의 농촌주부의 여가시간을 조사한 결과와 도시 비취업주부의 것과 비교하면 농촌주부의 여가시간은 1시간 30분 2시간 10분이 더 적다. 농촌주부의 여가내용을 도시의 취업주부나 비취업주부와 비교해보면(한경미, 1990; 1991) 농촌주부 여가활용은 상대적으로 더 단순하고 내용의 질도 크게 떨어졌다. 김인숙 등의 연구(1993)에 의하면 객관적인 농가

의 여가생활 상태는 다른 영역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주관적인 생활만족 수준에서도 가족여가생활에 대한 만족이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김동일 등(1980)이 농촌의 생활의 질을 측정된 결과, 대다수는 의료시설을 제외한 환경조건이나 사회적 조건 내지 상호작용면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하는 편이지만, 주택이나 농사일, 여가활동과 휴식 또는 농가소득과 같은 개인생활을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과 저소득 농가의 불만수준이 높았다. 최은숙 등(1992)은 생활의 질을 각 가구의 객관적 생활조건과 주관적 만족도, 그리고 살고 있는 마을의 객관적 생활환경과 주관적인 만족도를 각각 측정된 다음 이 4가지 점수의 합을 농촌가족의 총체적인 생활의 질로 분석하였는데 그 수준은 100점 만점에 57.7점으로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객관적인 평가수준도 지역사회에 대한 것보다 개별가구에 대한 평가수준이 더 낮고, 객관적인 실제 생활조건보다 개인이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만족의 정도는 더 낮게 평가되었다. 이것은 김인숙 등(1993)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1986년과 1992년(최은숙 외) 연구를 비교해보면 8개 생활영역에서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수준이 가장 낮았다.

현 농촌가족은 여가생활을 향유할만한 시간적 여유나 소득의 뒷받침이 부족할 뿐 아니라, 사회제도적인 여가시설이나 체계가 미흡하여 여가생활에서는 취약한 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현사회에서 여가는 노동과 분리할 수 없는 일상생활에 필요불가결한 활동으로써 일을 전제로 한 노동력 재생산의 시간이며 활동임을 감안할 때, 농가부부의 복지를 위해서 더욱 많은 여가정책과 지원대책, 농촌가족을 위한 생활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고 본다.

III. 농촌가족의 복지대책에 관한 논의

농업인구 구조와 산업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양적으로 급감하고 있다는 데에 우려할 수 있으나, 그 보다는 농업이 국민경제에서 어떻게 적합한 기능을 수행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

다.

UR이후 농수산물 개방에 따라 농업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특히 수도작 농업은 농가경영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영농 경쟁력이 낮은 농가는 농외취업을 도와주고 고령화된 농가는 농업에서 은퇴한 후에 생활보장을 하는 등의 사회복지지원의 대책을 마련해주어 탈농을 유도한다. 또한 전업농중심에서 농가를 보다 다양하게 유형화하여 유형별로 육성지원하고, 생산요소의 질적개선을 꾀함으로써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농가유형을 유형화하기 위해서는 농촌지역이 지니고 있는 입지조건이나 인구, 교육, 사회, 경제, 생활환경, 생산기반, 복지수준 등을 고려한 제자원과 특성에 관한 지표가 설정되고 이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생산요소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지개량과 농지의 수리조건과 비옥도를 높이는 방안과 함께 농가노동력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농업생산기술을 보급하고 농가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는 것이 필요하다.

농촌가족의 복지대책을 논의하는 데는 객관적이고 물질적인 측면과 주변환경적인 측면을 도외시할 수 없으나, 농촌가족의 가치나 인식, 심리적 태도 등과 같은 주관적이고 정신적 측면의 배려가 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새마을 운동과 농촌환경 개선사업과 같은 획일적이고 외부적인 접근방법보다는 농가의 유형별로 또는 개별가족의 욕구와 필요를 충족하는 식의 개별가정차원에서 차별적인 복지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농촌가족이 1960년대 이후로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 아노미현상, 농업에 대한 자긍심 결여, 농정에 대한 불신 등 사회심리적으로 피폐한 양상을 보이고, 농정의 주체가 아닌 대상으로서만 존재하는 등 영농의지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소득증대 방안만으로는 외부적이고 일시적인 접근법으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본다.

농촌가족은 객관적인 실제 조건보다는 주관적인 만족수준이 크게 낮고, 생활만족도도 경제적, 물질적 변수보다는 심리적 변수에 의해 중요한 영향을 받는다는 선행연구(임정빈, 1990; 김동일, 1980; 김인숙,

1992; 최은숙, 1992; 김인숙 외, 1993; 조완규, 1993) 결과들도 이를 뒷받침해준다.

농가가 현재의 부부단위로 소규모 영농을 유지하면서 특작 등의 농업을 병행할 때 농업노동의 부담은 계속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별농가의 농업규모를 크게하고 농업생산을 담당할 법인경영체를 창출하거나 기계화로 노동부담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농촌내에서 농업 이외의 취업을 원하는 가족에게 적합한 소득원을 개발하여 취업의 기회를 확대하고, 겸업도 증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농촌여성의 53%가 농외 취업을 원하나 9%만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농촌진흥청, 1994). 신희준 등(1996)은 농가의 가족노동력을 효과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활용대안을 1) 수도자작 2) 농지임차 3) 작업수탁 4) 농지이용률 제고 5) 전작 6) 과수 7) 축산 8) 농외취업 9) 농외사업 10) 여가시간 등으로 제시하였다. 농가는 개별농가와 지역농업 특성에 따라 이들 작업에 노동력을 효과적으로 배분함으로써 효용의 극대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미국과 일본과 같은 선진국도 경제성장과 함께 겸업농이 계속 증가하여 왔고, 우리나라도 현재 40%를 차지하는 겸업농의 비율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가의 겸업증대를 위해서는 농촌의 도시화와 공업화가 촉진되어야 할 것이다. 도시농촌간 균형적 발전과 복지농촌을 건설하기 위해서, 그리고 대도시 경제활동에 비능률을 감안할 때, 미래에는 농촌의 공업화 쪽으로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농업노동에 여성들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기계를 사용할 줄 아는 여성은 극히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고(6%; 권영자 외, 1987), 여성은 발농사나 특작 등의 기계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농업에 주로 참여하고 있어, 여성의 신체적 노동강도는 남성보다 더 클 수 밖에 없다. 발농사는 농산물 시장개방에도 가격경쟁력이 높은 고수익작물의 생산기반이 되므로 많은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발의 경지정리와 효율적인 급수체계를 위한 기반시설 설치, 기계작업으로 작업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여야 한다. 또한 보유하고 있는 농기

계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사용법에 대한 지도와 교육이 필요하며, 더불어 농약살포와 기계사용시 안전교육도 요청된다.

건강은 농가부부의 생활만족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변수이므로 농촌가족에 대한 의료체계를 개선하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농가의 가사노동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가족원간의 적극적인 가사분담이 요청된다. 농가주부의 경제활동참여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사노동은 여전히 주부가 전담하고 있어, 주부는 타가족원에 비해 만족도가 가장 낮고, 농사일과 가사의 이중적인 부담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농촌가구는 도시가구 보다 3세대 가족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노인부양의 부담이 크고, 잔존한 인구의 노령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노부부만의 가구와 독거노인 가구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가족복지차원에서 탁로소시설의 보급이 절실히 요청된다. 취학전 자녀를 위해서는 탁아소 시설과 방과후 자녀교육지도, 학교급식시설의 확대가 시급하다.

그리고 도시의 주거환경보다는 아직 열악한 주택개량과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요청된다. 농촌주택 현황을 보면 전국에 약 180만호의 농어촌주택중 '80년대 이후에 신축된 것은 약 15%미만이고, 대부분 주택은 약 30년이상 노후화된 주택으로 주거환경이 불편하다. 1970년이후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읍자사업으로 화장실, 지붕개량 등 부분적인 주택개량 위주였으므로 장기적 측면에서 근본적인 주거환경개선에 별도움을 주지 못하고 부채만 가중되게 하였다. 농촌의 생활환경 시설에서도 복지회관이나 마을회관, 농기계 보관창고, 축사 등 시설은 어느 정도 있으나 주택이나 도로, 상하수도, 분뇨처리, 쓰레기처리 등 기반시설이 취약하여 생활환경을 열악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취약한 생활환경 기반하에서 주택개량은 효과가 반감될 수 밖에 없다(황한철 외, 1996). 가시적이고 물량적인 성과를 내는 사업보다는 장기적인 계획에서 농촌의 주택개량은 생활환경 기반시설의 정비와 더불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분산된 마을을 집단화한 택지를 개발하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생산시설, 유통과 가공시설을 구비하여 주거

환경과 생산공간이 조화되도록 하여 농업노동과 가사노동의 효율화를 돕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가사노동을 절감해주는 편의용품과 생활기기의 대중적인 도입이 필요하며, 농번기에는 가사대행 서비스나 공동취사 등의 방법을 이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농가부부의 여가시간을 확보하고 이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가족복지 차원에서 중요한 사안이다. 현존하는 농가부부는 여가에 대한 가치인식이 낮은 구세대이고, 여가향유 기대수준도 낮은 고연령층이다. 농번기와 농한기의 구분이 점차 없어지고 농사일이 성격상 가사노동처럼 일의 시작과 끝이 불분명하여 여유시간을 잠식해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 농가부부의 여가시간이 증가했거나 내용상 진전된 것이 없다. 오히려 농한기때 충분히 쉬면서 다음의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여유와 기회가 없어지고 있다. 선행연구 결과 농촌가족은 생활영역별 객관적 조건과 주관적인 만족도중에서 가족 여가생활 영역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고, 도시가족에 비해 내용과 활용의 질이 크게 떨어진다. 대부분의 여가시간은 TV시청과 라디오청취, 별로 하는 일 없이 소일하거나 낮잠 등으로 채우고 있어 극히 소극적인 양상을 보인다. 소극적 여가시간은 오히려 생활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적극적인 여가시간으로 많이 소비할수록 생활의 질 인식은 높게 나타난 결과(한경미 외, 1990)를 볼 때, 농가부부가 노동시간을 경감하여 절대적인 여가시간의 양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만족스럽게 활용할 것인가는 더욱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농촌가족을 위하여 여가생활 교육과 시간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하는 것이 시급하다. 또한 복지체제에서 소외되고 취약한 농촌가족을 위해 지역사회와 국가차원에서 다양한 무료 여가시설과 생활에 유용한 여가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적극 시행해야 할 것이다.

IV. 결론 및 제언

1. 농촌가족의 노령화와 과소화, 공동화현상으로

농업생산력이 저하되고, 지역사회 기능까지 위축되고 있으며, 성별로는 여성인구가 남성보다 더 많아 여성의 과중노동과 복지체계 미흡으로 인한 문제들이 앞으로 더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2. 농촌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1990년에 61.1%로 비농가여성이나 농촌 남성의 증가율을 앞서고 있다. 농업노동시간의 추이를 보면 남편과 부인 모두 과거로 부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일정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오히려 농한기 부인의 노동시간은 증가하고 있다. 부인의 경우 남편보다 농업노동시간 양은 적지만 가사노동을 합한 총노동시간은 부인이 2시간 정도 더 많고, 부인은 기계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발농사에 주로 참여하고 있어 작업자세나 신체노동의 강도에서 부인은 남편보다 열악하다고 볼 수 있다. 대다수의 여성이 농기계조작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능력을 배양하는 교육이 요청되고, 과중한 노동과 적절한 시기에 치료미흡으로 발생하는 유병율을 감소시키기 위해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의료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농가가 현재의 부부단위로 소규모영농을 유지하면서 특작농업을 병행할 때 농업노동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기 때문에, 농촌의 공업화를 피하여 농외취업의 기회를 확대하고, 대단위 기계화영농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농촌가족은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 농업에 대한 자긍심 결여 등 사회심리적으로 피폐한 양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획일적이고 외부적, 일시적인 접근법보다는 개별 가정차원에서 차별적이고 심리적인 복지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농촌부부의 가사노동참여 추이를 보면 전통적으로 연료준비나 장보기, 불때기, 뜯청소 등은 남편의 영역이었으나, 난방과 취사설비의 현대화가 이루어지면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반면, 부인은 여전히 90%이상의 가사노동을 전담하고 있으며 노동시간도 남편과 큰 격차를 가지고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농가주부는 타가족원에 비해서 생활만족도가 가장 낮고, 농사일과 가사일의 이중부담을 가장 큰 애로점으로 들고 있다. 농촌은 가정기기와 편의용품의 보급과 주택구조가 도시보다 떨어지고 재래적이기 때문에 주택개량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생활기기의 대중적인 보급과 활용을 돕고, 특히 농번기에는 공동취사나 가사대행서비스를 비롯하여 가사노동의 사회화를 진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취학전 자녀를 위한 탁아소시설과 탁로소시설, 방과후 자녀지도와 학교급식실시 등이 절실히 요청된다.

4. 농촌가족의 여가시간의 양적, 질적 내용이 도시가족보다 취약한 수준이다. 농번기의 여가시간은 부부모두 약간씩 증가하는 추세이나 농한기의 여가시간은 '83년 이후로 감소하고 있다. 농한기의 경우 부인의 여가시간은 남편보다 2시간 20분이 더 적고, 내용에 있어서도 TV시청이 주를 이루는 극히 단순하고 소극적인 양상을 보인다. 생활영역별 만족도에서도 여가생활영역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 여가시간의 절대적 양을 확보하는 것과 적극적으로 여가를 활용하도록 돕는 여가생활교육과 시간관리교육이 시급히 필요하다. 또한 농촌 지역사회내에 다양한 무료 여가시설과 유용할 수 있는 여가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적극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1) 고헥경 외, 한국농촌가족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63.
- 2) 권영자 외 3인, "농촌여성의 노동실태에 관한 연구-농가주부를 중심으로," 한국여성개발원, 연구보고 200-2, 1987.
- 3) 김동일 외, "한국농촌주민의 삶의 질-사회지표구성을 위한 종합적 접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총서 8, 1982.
- 4) 김인숙, "한국농가의 생활의 질에 관한 조사연구(1)," 한국농촌생활과학회지 13(4), 1992: 1-4.
- 5) 김인숙, 최은숙, "농가의 생활수준 및 생활만족수준에 관한 연구-생활의 질 접근을 위한 시도," 한국농촌생활과학회지, 4(2), 1993: 83-97.
- 6) 김인숙, 임평자, 김희순, "농가주부와 경영주의 생활시간내용," 한국농촌생활과학회, 7(1), 1996: 81-97.
- 7) 김일철 외, 한국농민의 불안과 희망, 서울대학교출판부, 1994.

- 8) 김주숙, "한국농촌여성연구 -5개 부락의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한국농촌의 여성과 가족: 76-210, 1980, 한올아카데미, 1994.
- 9) 김주숙, "여성농민의 지위와 역할,"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국농업, 농민문제연구, 1987: 493-520.
- 10) 김주숙, "농업생산양태와 농촌가족문제-청양군 운곡면의 2개리 조사결과," 한국농촌의 여성과 가족, 1987: 287-330, 한올아카데미, 1994.
- 11) 김태호, 농촌사회문제론, 농림수산정보센터, 1994.
- 12) 김혜경, 문주재, 문숙재, 윤정숙, 이영, 농가생활연구, 신광출판사, 1990.
- 13) 농림수산부, 농림수산주요통계, 각년도.
- 14) 농림수산부, 농가경제조사결과, 1993.
- 15) 농촌경제연구원, 농촌주민의 의식과 가치관, 1989.
- 16) 농촌진흥청, 농가주부 및 경영주의 생활시간 분석보고서, 생활개선자료, 1980, 1984, 1988.
- 17) 서광희, 조병은, "농촌부부의 배우자역할평가와 결혼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31(1), 1993: 97-120.
- 18) 신희준, 박덕렬, 이해수, "적정영농규모조사 및 농업경영모델개발 연구," 농어촌진흥공사 농어촌연구원 1995년도 연구개발사업 보고서, 1996: 101-107.
- 19) 안옥희, 박인진, 최선남, "청송지역 주부의 가사노동 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생활과학회지 5(2), 1994: 159-168.
- 20) 이금옥, "농촌여성의 생활개선 조직활동 참여와 개선방안," 한국농촌생활과학회지 15(4), 1994: 5-10.
- 21) 이정환, "농촌노동력문제의 본질과 대책의 방향," 농업과학심포지움, 한국농업과학협회, 1993: 30-42.
- 22) 이한기, 한귀정, "농촌 가족구조 분석," 한국농촌생활과학회지 5(1), 1994: 57-66.
- 23) 임정빈, "농촌가정생활만족에 관한 연구: 한국과 미국 농촌가정을 대상으로," 대한가정학회지 28(4), 1990: 135-153.
- 24) 정영일, "한국농업구조의 변화와 전망," 광복 50주년 기념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농업 50년의 회고와 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5: 59-94.
- 25) 조완규, "농민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서울여대 농촌발전연구소 논총 18, 1993: 63-76.
- 26) 조희금, "농촌주부의 가사노동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7(2), 1989: 145-161.
- 27) 조희금, "농촌주부의 생활시간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8(2), 1990: 163-180.
- 28) 최은숙, "2000년대를 향한 농촌생활개선방안," 한국농촌생활과학회지 1, 1990: 5-10.
- 29) 최은숙, 김인숙, "농촌가정생활의 질 진단을 위한 일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8(2), 1990a: 87-100.
- 30) 최은숙 외, "한국농촌의 생활의 질 지표개발 및 진단-지역개발지표구성을 위한 종합적 접근," 서울대학교 농촌개발연구소, 1992.
- 31) 최재석, 한국농촌사회연구, 일지사, 1975.
- 32) 통계청, 주요경제지표, 1993.
- 33)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1991.
- 34) 한경미, "취업주부의 시간사용과 영향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2), 1991: 171-190.
- 35) 한경미, 황덕순, "주부의 여가시간과 생활의 질 인식에 관한 연구 -교육기 자녀를 가진 비취업주부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8(1), 1990: 69-82.
- 36) 한국은행, 주요경제사회지표(1945-1988), 1988.
- 37) 황한철 외 5인, "농어촌마을 정비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 농어촌진흥공사 농어촌연구원, 1995년도 연구개발사업보고서, 1996: 132-139.
- 38) Brown & Paolucci(1979), 윤복자, 김경희, "가정학 철학에 대한 Vincent의 사적사상에 대한 고찰," 대한가정학회지 21(3), 1983: 153 재인용.